

간호대학생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 ; 성적 자기주장과 성역할 고정관념 중심으로

박서아¹, 신경숙², 김혜영^{3*}

¹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²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³계명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Influencing on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among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Sexual Assertiveness and Sex Stereotypes

Seo-A Park¹, Kyoung-Sook Shin², Hye-Young Kim^{3*}

¹Department of Nursing, Gyeongbuk college of Health

²College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Keimyung University

³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 및 동성애에 대한 태도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D광역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교 간호대학생 253명을 대상으로 2019년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t-test, ANOVA 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적 자기주장은 평균 평점은 4.44 ± 0.37 점, 성역할 고정관념은 2.08 ± 0.58 점, 동성애 태도는 2.75 ± 0.37 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성애 태도는 종교($F=13.32, p<.000$), 종교생활($F=20.43, p<.000$), 부모님의 양육태도($F=2.74, p<.044$)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과 동성애의 태도($r=-0.13, p=.034$)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성역할 고정관념과 동성애의 태도($r=0.24, p<.000$)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종교, 종교생활, 성역할 고정관념이 동성애 태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영향요인의 설명력은 23.1%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동성애 태도와 관련된 중재전략이 필요하고, 건강한 성 정체성을 위한 실천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elevance and different factors having an impact on sexual assertiveness and sex stereotypes for the attitude among nursing students toward homosexuality. A survey was conducted on 253 nursing students in D city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data was collected from April 11 to April 20, 2019 and it was then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Pearson'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2.0. The average of sexual assertiveness in the nursing students was 4.44 ± 0.37 , and the average of sex stereotypes was 2.08 ± 0.58 , and the average of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was 2.75 ± 0.37 . The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differed among religions ($F=13.32, p<.000$), religious life ($F=20.43, p<.000$) and method of parenting ($F=2.74, p<.044$).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exual assertiveness and the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r=-0.13, p=.034$). Also,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x stereotypes and the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r=0.24, p<.000$). Religion, religious life and sex stereotypes were the influential factors. Models that included the variables explained 23.1% of the variance for the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Thus,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interventional strategy related to nursing student' attitude towards homosexuality so as to develop a practical educational program for promoting healthy gender identity.

Keywords : Nursing Student, Gender Role, Gender Identity, Homosexuality,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Sexual Homophobic, Sex Stereotypes, Sexual Assertivenes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promotion grant from the Keimyung University Dongsan Medical Center in Daegu.

*Corresponding Author : Hye-Young Kim(Keimyung Univ.)

email: hye11533@kmu.ac.kr

Received May 21, 2019

Revised July 1, 2019

Accepted July 5, 2019

Published July 31,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성역할은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으로 사회적 성(gender)과 관련되며 성역할 발달에는 생물학적, 인지적, 환경적 요인들이 모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1]. 성역할 발달이 각 문화에서 성의 가치와 규범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하지만, 개인은 성역할에 관한 가치와 규범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을 습득해 가는 과정이며 특히 청년기 이후에는 성역할 발달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2].

대학생들은 신체적으로 생식기관이 성숙단계에 이르고 정신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아를 새롭게 정의하며 자아정체감, 가치, 신념 등을 형성한다[3]. 따라서 대학생들은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하기 가장 좋은 시기로, 이때의 대학생들의 올바른 성역할 정체감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4].

많은 대학생들은 충분한 지적능력을 가지고도 원하지 않는 성접촉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불쾌감, 모욕감, 불안, 두려움, 우울, 분노 등을 경험 할 수 있다[5]. 성적 자기주장은 성적 자율성이 내재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로서 원치 않는 성적접촉을 피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6]. 성적 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성적 욕구나 충동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자신이 원하는 성 행동을 시도하거나 실행하는 등의 성적 목표를 달성한다[7].

성적 자기주장의 요인으로는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적 자기주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6]. 이는 전통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을 내면화한 정도를 의미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대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성적 상황에서 거절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안전을 위한 자기주장을 어렵게 한다[8]. 반면 성역할 고정관념과 상반되는 양성 평등적 태도에 관한 대학생 연구에서는 성 평등 의식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났다[9].

성역할 고정관념은 한 사회 내에 규정된 성 역할에 구성원들이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채 성별에 따라 특성과 역할을 구별하려는 태도로, 획일적이고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다[10]. 이는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역할을 유연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이해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 제한되어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활동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11]. 이러한 문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정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빠른 시기에 이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나라의 문화와 주변 환경은 개인의 성 역할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반영한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은 동성애 태도의 영향을 미친다.

동성애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바탕으로 한 성 정체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과 성(性)이 동일한 상대에게 성적지향을 가지는 것이다. 성적지향이란 자발적인 선택보다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으로 동성애에게 사랑과 성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12]. 최근 사회적 편견을 반영하는 동성애 연구는 점차 줄어들고 동성애를 어느 문화에서나 존재해 온 인간관계의 또 다른 현상으로 바라보며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13-15].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성적 경험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성 정체성 발달, 사회적 낙인으로 편견, 차별과 같은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된다[16,17]. 이로 인해 동성애자들은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동성애자들의 삶의 어려움은 특히 이성애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부각되어 약물중독, 우울 및 자살 시도율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8-21].

지금까지 동성애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일수록, 권위적일수록, 종교적 신념이 강할수록, 부정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22-24],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동성애 혐오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5].

국외 연구에 따르면 동성애의 31-89%는 성적 지향으로 인해 의료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경험하였으며[26,27], 간호대학생들은 동성애 혐오감과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었다[28]. 또한 국내 임상현장에서의 의료인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모두 이성애자일 것이라는 가정과 적대적인 태도로 인하여 동성애자들은 건강관리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13].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의료인의 부정적인 태도는 성 소수자로 하여금 의료 서비스 이용과 치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따라서 간호사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동성애들에게 지지자,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전문적인 실습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타심을 가지고 환자 중심의 보살핌을 제공하여 건강문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30]. 따라서 동성애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태도와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성애에 태도를 확인한 국내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대학생들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실천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차이를 확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 및 동성애에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 및 동성애에 대한 태도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D 광역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할 경우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발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연구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잠시 자리를 비워두었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변량 회귀분석, 효과크기 0.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동성애 태도의 영향요인으로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적자기주장을 예측변수로 적용하였을 때 211명으로 산출되었으며,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280명의 대상자 수로 산정하였다. 총 28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및 작성오류로 인한 설문지 27부를 제외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최종 253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성적 자기주장

타인의 성욕구와 의도에 의해 강요되지 않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성욕구에 대한 권리를 표현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의미하며[31], 본 연구에서는 Ha 등[32]이 개발한 78문항의 성발달 평가 도구 하부영역 중 성적 자기주장 영역에 해당되는 12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된 12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5 이었다.

2.3.2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은 개인이 속한 문화권 내에서 생물학적인 남성 또는 여성으로 특징되는 일반적인 성역할 태도를 의미한다[33,34]. 본 연구에서는 Kim[35]이 개발한 성역할 고정관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33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임을 의미하며, 성역할 고정관념 점수가 낮으면 성역할에 대해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Kim[35]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총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6 이었다.

2.3.3 동성애에 대한 태도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Bouton[36]이 개발한 동성애 혐오 척도를 Lee [37]가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7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Lee[3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총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1 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성애에 태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으며, Scheffè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과 동성애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저 K 대학교 생

명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IRB NO. 40525-201904-HR-16-03)을 받고 연구윤리 원칙을 준수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더라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모든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조사한 내용과 그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한 후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대상자들에 한하여 서면동의를 받고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특성은 간호대학생 3학년과 4학년이고 나이, 종교, 종교생활, 건강상태, 가족동거유무, 이성교제와 동성교제 그리고 성장도시 및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간호대학생 3학년 100명(39.4%), 4학년이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5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year)		22.96±1.29
Grade	3	100(39.4)
	4	153(60.2)
Family living together	Yes	177(70.1)
	No	76(29.9)
Religion	Christianity	39(15.4)
	Catholic	22(8.7)
	Buddhism	17(6.7)
	No religion	175(69.2)
Religious life	Be very passive	180(71.1)
	Passive	38(15.0)
	Active	27(10.7)
	Be very active	8(3.2)
Physical condition	perfectly well	74(29.2)
	to be healthy	155(61.3)
	be out of health	24(9.5)
	be not very healthy	0(0)
Heterosexual relationship	be in a relationship with	84(33.2)
	Dated before, but now do not	113(44.7)
	Have no experience of dating	56(22.1)
Homosexual relationship	Be in a relationship with	8(3.2)
	Dated before, but now do not	4(1.6)
	Have no experience of dating	241(95.2)
Growth area	Big City	147(58.1)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77(30.4)
	Farming and Fishing village	29(11.5)
	The others(foreign country)	0(0)
Parenting method	Authoritative Reared	34(13.4)
	Permissible Reared	87(34.4)
	Democratic Reared	129(51.0)
	Irresponsible Reared	3(1.2)
Sexual Self-Assertion		4.44±0.37
Gender Stereotype		2.08±0.58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2.75±0.37

153명(60.2%)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2.96(±1.29)세로 나타났고, 가족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대상자가 177명(70.1%)으로 대부분이었다. 종교는 개신교 39명(15.4%), 천주교 22명(8.7%), 불교 17명(6.7%), 기타 종교 또는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175명(69.2%)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생활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 대상자 8명(3.2%)으로 보다 매우 소극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대상자가 180명(71.1%)으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건강하다가 155명(61.3%)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84명(33.2%), 과거에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113명(44.7%),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56명(22.1%)로 나타났으며, 동성교제에서는 현재 교제 중인 대상자 8명(3.2%), 동성교제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241명(95.2%)으로 대부분이었다. 대상자들은 147명(58.1%)로가 대부분이 대도시에서 성장하였고, 부모님들

의 양육태도는 민주적인 양육법이 129명(51.0%)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들의 성적 자기주장 4.44±0.37점이고, 성역할 고정관념 2.08±0.58점, 동성애에 대한 태도 점수는 2.75±0.37점으로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종교(F=13.32, $p<.001$), 종교생활(F=20.43, $p<.001$), 부모님의 양육태도(F=2.74, $p=.044$)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개신교에서 천주교와 불교 및 종교가 없는 대상자보다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종교생활이 매우 적극적인 대상자가 매우 소극적인 대상자보다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허용적인 부모에서 동

Table 2.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53)

Variables	Categories	M±SD	t or F	p
Age(year)		22.9±1.29	1.08	.364
Grade		2.75±0.37		
	3	2.77±0.40	0.40	.526
	4	2.74±0.36		
Family living together		2.75±0.37		
	Yes	2.74±0.36	0.97	.325
	No	2.79±0.40		
Religion		2.75±0.37		
	Christianity ^a	3.08±0.52	13.32	<.001 a)b,c,d
	Catholic ^b	2.67±0.16		
	Buddhism ^c	2.72±0.33		
No religion ^d	2.69±0.32			
Religious life		2.75±0.37		
	Be very passive ^a	2.68±0.31	20.43	<.001 a,b,c<d
	Passive ^b	2.72±0.32		
	Active ^c	2.98±0.45		
Be very active ^d	3.53±0.46			
Physical condition		2.75±0.37		
	Perfectly well	2.80±0.35	0.88	.413
	To be healthy	2.73±0.40		
Be out of health	2.73±0.28			
Heterosexual relationship		2.75±0.37		
	Be in a relationship with Dated before, but now do not	2.79±0.34	1.39	.250
	Have no experience of dating	2.74±0.40		
	2.68±0.36			
Homosexual relationship		2.75±0.37		
	Be in a relationship with Dated before, but now do not	2.92±0.29	1.17	.320
	Have no experience of dating	2.50±0.24		
	2.75±0.38			
Growth area		2.75±0.37		
	Big City	2.74±0.36	0.42	.655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2.74±0.38		
Farming and Fishing village	2.81±0.45			
Parenting method		2.75±0.37		
	Authoritative Reared ^a	2.78±0.42	2.74	.044 b)c
	Permissible Reared ^b	2.83±0.40		
	Democratic Reared ^c	2.68±0.34		
Irresponsible Reared ^d	2.71±0.00			

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44$). 그 외 나이, 학년, 이성교제, 동성교제, 건강상태, 가족동거유무에서는 동성애 태도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3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 및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 및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보면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과 동성애의 태도($r=-0.13, p=.034$)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성역할 고정관념과 동성애의 태도($r=0.24, p<.001$)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성적 자기주장과 성역할 고정관념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04, p=.531$).

3.4 대상자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

대상자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과 차이를 나타낸 대상자의 종교, 종교생활, 부모의 양육태도, 성적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일반적 특성 변수 중 명목 척도로 측정된 변수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 값 (tolerance)과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과 잔차값 (Durbin Watson)을 산출하였다. 공차 한계값은 0.276-0.985로 0.1 이상이었고, VIF값은 1.016-3.625로 10보다 낮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잔차를 분석한 결과 Durbin-Watson 검정 결과는 1.968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회귀모형 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7.88, p<.001$). 다중회귀분석 결과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으로 종교($t=-2.10, p=.037$), 종교생활($t=4.18, p<.001$), 성역할 고정관념($t=3.28, p<.001$)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요인들은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23.1% 설명력을 보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한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과 동성애 태도를 확인하고, 동성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9 ± 1.29 세로 3학년은 39.5%, 4학년은 60.5%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종교와 종교생활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종교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동성애에 배타적인 태도를 나타낸 연구결과[38]가 본 연구결과를

Table 3. Correlations among Sexual Self-Assertion, Gender Stereotype and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N=253)

Variables	Sexual Self-Assertion	Gender Stereotype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r(p)	r(p)	r(p)
Sexual Self-Assertion	1		
Gender Stereotype	-.04(.531)	1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13(.034)	.24(<.001)	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N=253)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69	.27		9.81	<.001
Religion*	-.18	.08	-.22	-2.10	.037
Religious life*	.61	.14	.28	4.18	<.001
Parenting method*	.07	.04	.09	1.60	.110
Sexual Self-Assertion	-.02	.05	-.02	-.39	.694
Gender Stereotype	.12	.03	.18	3.28	<.001

Adj R²=.231, F=7.88, p<.001

*Dummy variable

지지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천주교와 불교보다 개신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Seo 등[3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고 Jeon 등[40]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적 성향이 강한 개신교인의 경우 교리에 근거한 도덕적 판단에 의하여 개신교 교리에 벗어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 사료된다[40]. 그러나 종교에 따른 결과 차이는 표본 추출의 한계와 표본에 따른 성향의 차이로 인한 한계일 수 있으므로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허용적일수록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권위적인 양육태도와 허용적인 양육태도는 공통적으로 자녀들에 대해 높은 애정을 보이며, 이 중 허용적인 양육태도는 훈육 기준을 세우지 않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양심에 근거한 복종의 형태를 선호한다[4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가 없어 그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육태도에 대해 분석한 Lee[4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허용적일 경우 자녀에게 자유로움은 주지만 일관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한다. 따라서 허용적인 부모는 바람직하지 않는 자녀의 행동도 조장하는 양육행동을 나타내기도 하여, 허용적 양육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른 시기에 성 관련 행동에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2]. 부모의 양육 유형의 효과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는 있으나 모든 연구가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며, 이는 사회적, 문화적, 개인의 가치관, 경험, 정서,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나타낸다[41]. 따라서 추후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성 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전반적인 성 의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 관련 변수들로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인하였다. 성적 자기주장과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부적인 상관관을 보임으로써, 간호대학생이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동성애 태도를 살펴보면 정적인 상관관을 보임으로써, 간호대학생이 개방적인 성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2.08 ± 0.58 점으로 Choi[43]의 간호대학생을 한 연구결과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고, Lee와 Kang [44]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보다는 낮아 성 역할에 대해 허용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높으며, 전통적인 견해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적 자기주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43]. 바람직한 성 역할은 성 고정관념에 따른 전통적인 성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행동할 수 있다[45]. 따라서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국가에서 급변하는 사회의 바람직한 성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적 자기주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성(sex)에 집착하지 않고 적절한 성역할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4].

마지막으로 동성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은 종교, 종교활동과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확인되었다. 천주교와 불교보다 개신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고, 매우 적극적인 종교생활을 지남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었다. 국외 Fisher 등[38]의 종교적 성향이 강할수록 동성애자들에게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개인에 따른 종교적 성향의 차이를 보고한 국내의 Seo 등[39]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적극적인 종교활동이 전통적 가치규범을 따르게 하며 보수적인 성향이 높게 나타나게 되고[39], 따라서 사회적 권위에 반하는 집단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성 소수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보다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11].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내면화 과정을 통해 더 보수적인 경향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성애 태도에 대하여 보고한 Jang[15]의 연구 결과 전통적이며 고정관념적인 성 역할태도를 보일수록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임을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성 역할정체감을 확립할 시기인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성 관련 교육, 대중매체 활용한 교육 등의 적극적인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도 개개인의 행복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편견과 선입견이 지배적이다. 동성애자들은 부정적인 시선과 냉담한 태도, 편견으로 인한 불

편감, 고정관념, 고립감, 자살,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12,15].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환자 중심의 치료에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으므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배제된 교육 및 건강문제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간호대학생의 동성애 태도와 관련된 중재전략이 필요하고, 건강한 성 정체성을 위한 실천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과 동성애 태도를 확인하고, 동성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2개의 대학에서 3학년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고, 직접적인 선행연구와의 비교가 제한적이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확대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동성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후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대학생들은 미래 사회의 주체자로 올바른 사회의 성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성숙한 성 정체감 확립이 중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대상자 중심의 근거 기반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하고, 편견이 배제된 포괄적인 방법으로 간호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동성애 태도와 관련된 중재방안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M. A Kim, S. H. Nam, "A Q study on gender-role identity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Vol.16, No.2, pp.306-315, 2004. From: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48777>
- [2] M. H. Shim, Y. Endo, "A research on gender-role identity, gender discriminative consciousness and attitudes toward military service of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J Psychol Soc Issues*, Vol.17, No.1, pp.1-17, 2011 From: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73882>
- [3] S. O. Yang, G. H. Jeong, "Perceptual difference of sexual image and sexual rol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in university,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8, No.2, pp.289-300, 2002.
- [4] S. L. Bem, "Gender schema theory: A cognitive account of sex typing." *Psychological review*, Vol. 88, No.4, pp.354, 1981. DOI:<http://dx.doi.org/10.1037/0033-295X.88.4.354>
- [5] P. H. Smith, J. W. White, and L. J. Holland,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dating violence among adolescent and college-age wome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93. No. 7, pp. 1104-1109, 2003. DOI:<http://dx.doi.org/10.2105/AJPH.93.7.1104>
- [6] Y. H. Kim, S. T. Moon, H. S. Kang, "Factors influencing on sexual assertivenes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Vol.19, No.3, pp166-175, 2013. DOI: <http://dx.doi.org.kims.kmu.ac.kr/10.4069/kjwhn.2013.19.3.166>
- [7] J. Y. Lee, E. S. Le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 sexual self-assertiveness scale for fem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7, pp. 47-62, 2006.
- [8] P. J. Morokoff, K. Quina, L. L. Harlow, L. Whitmire, D. M. Grimley, P. R. Gibson, et al. "Sexual assertiveness scale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3, No. 4, pp. 790-804, 1997. DOI:<http://dx.doi.org/10.1037/0022-3514.73.4.790>
- [9] N. M. Yang, J. Y. Lee, "The effect of rape myth on the sexual assertiveness and control disposition-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gender equality awareness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sian Women*, Vol. 47, No. 47, pp. 39-65, 2008.
- [10] D. I. Kim, *Sociology of Gender*. Seoul: Munemsa, 1993.
- [11] S. H. Nam, M. A Kim, "The Study on the Gender Role Identity & Sex Stereotype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17, No. 4, pp. 561-572, 2005. From: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48754>
- [12] A. P. Haas, et. al., "Suicide and suicide risk in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opulations: Review and recommendations." *Journal of homosexuality*, Vol.58, No.1, pp.10-51, 2010. DOI:<https://doi.org/10.1080/00918369.2011.534038>
- [13] K. D. Yeu, M. H. Lee, "The Homosexual Identity Development Process and Mental Health In Korean Gay Men.",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 Vol. 15, No.3, pp. 289-298, 2006.
- [14] J. C. Phillips, K. M. Ingram, N. G. Smith, E. J. Mindes, "Methodological and content review of lesbian-, gay-, and bisexual-related articles in counseling journals: 1990-1999."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 31 No.1, pp.25-62, 2003.
DOI:<https://doi.org/10.1177/001100002239398>
- [15] I. S. Jang,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 and Self-esteem on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among College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7, No. 8, 560-569, 2017.
DOI:
<http://dx.doi.org/kims.kmu.ac.kr/10.5392/JKCA.2017.17.08.560>
- [16] A. L. Roberts, S. B. Austin, H. L. Corliss, A. K. Vandermorris, K. C. Koenen, "Pervasive trauma exposure among US sexual orientation minority adults and risk of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100, No.12, pp. 2433-2441, 2010.
DOI:<https://doi.org/10.2105/AJPH.2009.168971>
- [17] J. Lee, D. Y. Shim, M. O. Yang, H. S. Kim, "The Effects of Sexual Behavior and Self-Esteem on Homophobia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1, pp. 543-553, 2015.
DOI:<https://doi.org/10.14400/JDC.2015.13.1.543>
- [18] R. Garofalo, R. C. Wolf, S. Kessel, J. Palfrey, R. H. DuRant, "The association between health risk behaviors and sexual orientation among a school-based sample of adolescents." *Pediatrics*, Vol. 101, No. 5, pp. 895-902, 1998.
DOI:<https://doi.org/10.1542/peds.101.5.895>
- [19] E. K. Mościcki, P. Muehrer, L. B. Potter, "Introduction to supplemental issue: Research issues in suicide and sexual orient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25, No. 1, pp. 1-3, 1995.
DOI:<https://doi.org/10.1111/j.1943-278X.1995.tb00484.x>
- [20] R. C. Savin-Williams, "Verbal and physical abuse as stressors in the lives of lesbian, gay male, and bisexual youths: associations with school problems, running away, substance abuse, prostitution, and suicid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2, No.2, pp. 261, 1994.
DOI:<http://dx.doi.org/10.1037/0022-006X.62.2.261>
- [21] E. Saewyc, L. Bearinger, P. Heinz, R. Blum, M. Resnick, "Gender differences in health and risk behaviors among bisexual and homosexual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 23, No.3, pp. 181-188, 1998.
DOI:[https://doi.org/10.1016/S1054-139X\(97\)00260-7](https://doi.org/10.1016/S1054-139X(97)00260-7)
- [22] M. E. Kite, K. B. Bryant-Lees, "Historical and contemporary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Teaching of Psychology*, Vol. 43, No. 2, pp.164-170, 2016.
DOI:<https://doi.org/10.1177/0098628316636297>
- [23] L. M. Lance, "The effects of interaction with gay persons on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Human Relations*, Vol. 40, No. 6, pp. 329-336, 1987.
DOI:<https://doi.org/10.1177/001872678704000601>
- [24] G. M. Herek,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Correlates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sex research*, Vol. 25, No.4, pp. 451-477, 1988.
DOI:<https://doi.org/10.1080/00224498809551476>
- [25] J. G. Kerns, M. A. Fine, "The relation between gender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gay men and lesbians: Do gender role attitudes mediate this relation?." *Sex Roles*, Vol.31, No.5-6, pp.297-307, 1994.
DOI:<https://doi.org/10.1007/BF01544590>
- [26] S. Dogan, M. Dogan, E. Bestepe, E. Eker, "Development and reliability study of Homosexuality Attitudes Scale: a preliminary study." *Anatolian Journal of Psychiatry*, 9, pp. 84-90, 2008.
From: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6448023>
- [27] The Royal Collage of Nursing. The Nursing Care of Lesbian and Gay Male Patients or Clients, 2003. Available from URL:
http://www.rcn.org.uk/data/assets/pdf_file/0007/7857/002018.pdf. Accessed 14 November 2011.
- [28] G. Røndahl, S. Innala, M. Carlsson, "Nursing staff and nursing students' emotions towards homosexual patients and their wish to refrain from nursing, if the option existed."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 Vol.18, No. 1, pp. 19-26, 2004.
DOI:<https://doi.org/10.1111/j.1471-6712.2004.00263.x>
- [29]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2012). *National healthcare disparities report 2011*. Retrieved from From:
www.ahrq.gov/research/findings/nhqrdr/nhdr11/nhdr11.pdf
- [30] The Joint Commission, Behaviors that undermine a culture of safety. Sentinel Event Alert, Vol. 40, pp. 1-3, 2008. Retrieved from
: www.jointcommission.org/assets/1/18/SEA_40.PDF
- [31] P. J. Morokoff, K. Quina, L. L. Harlow, L. Whitmire, D.M. Grimley, P. R. Gibson, et al, Sexual assertiveness scale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3 ,No.4 pp.790-804. 1997.
DOI:<http://dx.doi.org/10.1037/0022-3514.73.4.790>
- [32] E.H. Ha, J.M. Jun, M.S.Yoo, S.H. Lee, Y.J. Cho,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exual development assessment scale for the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 of Counseling*, Vol 7, pp. 47-62. 2006.
- [33] S.H. Oh, H. S. Kang, Y.H. Kim, Analysis of rape myths acceptance and gender role stereotype among female and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24, pp. 249-257. 2010.
DOI:<https://doi.org/10.5932/JKPHN.2010.24.2.249>
- [34] R. Kalin & P. J. Tilb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x role ideology scale. *Psychological Reports*,

Vol.42, No.3, pp. 731-738. 1978.

DOI:<https://doi.org/10.2466/pr0.1978.42.3.731>

- [35] D. I.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stereotypes and authoritarianism. *Social Science Review*,63(2), 45-56. 1993.
- [36] R. Bouton, P. Gallaher, P. Garlinghouse, T. Leal, L. Rosenstein, R. Young, Scales for measuring fear of AIDS and homophobia.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51, No. 4, pp. 606-614. 1987.
DOI:https://doi.org/10.1207/s15327752jpa5104_13
- [37] B. J. Lee, Social work students' attitudes towards lesbians and gay men.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22, No.2, pp.1-19. 2006.
- [38] R. D. Fisher, D. Derison, III. C. F. Polley, J. Cadman, D. Johnston, Religiousness, Religious Orientation, and Attitudes Towards Gays and Lesbian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24, No. 7, 614-630, 1994.
DOI:<https://doi.org/10.1111/j.1559-1816.1994.tb00603.x>
- [39] Y. S. Seo, J. L. Lee, J. H. Cha, The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s, Religiosity, Authoritarianism, and Cultural Values on Korean College Students' Homophobia,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18, No.1, pp.177-199, 2006.
From: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369550>
- [40] M. K. Jun, J. H. Jun, S. A. Whang, Recognition and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of High School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No. 10, pp. 631-642, 2017.
DOI: <http://dx.doi.org/10.14257/aimahs.2017.10.09>.
- [41] H. J. Lee, M. H. Kang, The Validation of the PAQ and the Relationship with Parenting Style and Family Function. *Studies on Korean Youth*, Vol.19, No.3, pp.5-31, 2008.
From: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043343>
- [42] R. D. Parke, R. Buriel, Socialization in the family: Ethnic and ecological perspective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1998.
DOI:<https://doi.org/10.1002/9780470147658.chpsy0308>
- [43] S. H. Choi,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of Women University Students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 Mental Health Nursing*, Vol.25, No. 4, pp. 367-374. 2016.
DOI:<https://doi.org/10.12934/jkpmhn.2016.25.4.367>
- [44] E. S. Lee, H. S. Kang,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gender role stereotype, sexual assertiveness, sexual assault recognition,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and sexual violence experience in dating. *J East-West Nurs Res*. Vol. 20, No.1 pp. 48- 56. 2014.
DOI:<https://doi.org/10.14370/jewnr.2014.20.1.48>
- [45] S. L. Bem, Sex 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 Personal Soc Psychol*, Vol. 31, pp.634-643. 1975.
DOI:<http://dx.doi.org/10.1037/h0077098>

박 서 아(Seo-A Park)

[정회원]



- 2018년 8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8년 9월 ~ 현재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과정)
- 2019년 3월 ~ 현재 :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여성건강, 간호교육, 젠더간호

신 경 숙(Kyoung-Sook Shin)

[정회원]



- 2017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8년 2월 ~ 현재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박사과정)
- 2018년 3월 ~ 12월 : 대경대학교 겸임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계명대학교 겸임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 모성간호, 기초간호

김 혜 영(Hye-Young Kim)

[정회원]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98년 3월 ~ 2014년 2월 : 가톨릭상지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관심분야>

여성건강, 젠더간호, 난임간호